

동백은 다시 피는데 미당은 오지를 앓네

미당의 고향

7 고창 선운사(禪雲寺)

미당 서정주(1915~2000)는 어릴 적 할머니를 따라 선운사에 가곤 했다. 훗날 시인이 된 그는 그때 봤던 선운사 동백을 그리며 시를 한 편 쓴다. 지금도 선운사엔 동백이 핀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가고 없다.

선운사로 오르는 길엔 개울이 함께 따라왔다. 봄이긴 했지만 개울물은 아직 차갑게 흘렀다. 전북 고창의 도술산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선운사는 세워진 시기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신라 진흥왕이 세웠다는 설과 백제 위덕왕 24년(577)에 걸단 스님이 세웠다는 설이 있다.

대웅전과 영산전 뒤로 동백숲이 보였다. 미당이 보러 왔다 못보고 간 동백이 작년 것부터 프르르른 피어 있고, 지난 것들은 벌써 선 목에서 나오는 옥자백이처럼 제 가지를 끌어내고 있었다. 미당엔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 있고, 대웅전 벽의 기둥들은 숲 속에서 봄을 맞는 듯했다.

미당의 고향 질마재는 그의 시 세계에서 중요한 지리적 공간이다. 선운사는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지리적 공간이자 정신적 공간이 된다. 유년기를 고향에서 보낸 미당은 고향을 떠났다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년기 시절을 질마재와 선운사에서 다시 보내게 된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사건에 참가했던 미당은 재학 중이던 중앙고등보통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고향으로 내려와 고창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학하지만 광주학생사건과 관련되어 다시 학교를 그만 두게 된다.

가난을 안고 고향을 떠났던 미당은 가난 속의 고향 질마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미당의 유년과 청년시절은 시절 자체가 가난과 혼란의 시대였다. 당시의 많은 젊은이들이 마르크스와 레닌에 기대있었고 미당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미당이 고향 질마재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마르크스와 레닌의 웅변이 웬지 미당에게 큰 위력이 되지 못했다.

그 때 미당을 만져준 것은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다녔던 절집의 향수와 그 곳에 머물고 있었던 석전(박한영·1879~1948) 스님이었다. 한시에 능했던 문인이자 독립운동의 맨 앞줄에 서있던 석전 스님은 날개 부러져 날지 못하는 청년에게 따뜻한 동지가 되어준다. 훗날 미당은 "내 고통과 방황의 시기에 내 피와 살을 데워준 분은 석전 스님이었다"라고 회고한다. 미당은 그 따뜻한 동지 안에서 불교와 가까워졌고, 다친 날개를 다시 펼 수 있었다.

동백이 피고 지는 대웅전과 영산전 사이에 미당이 머물던 방이 있었다고 한다. 미당이 선운사에 머무는 동안 그의 언어엔 부처님의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했



고, 이를 바탕으로 훗날 불교적인 시를 많이 쓰게 된다. 1947년 미당은 '국화 옆에서'를 발표한다. 우주적인 연기와 인연살을 기초로 한 이 시는 미당의 천편이 넘는 시 중 그를 대표하는 시가 된다.

들꽃 사이에서 찾아낸 작은 돌로 쌓아올린 길가의 적석담처럼, 가슴 속에서 찾아낸 언어들로 쌓아올린 그의 시는 손으로 닿지 않을 수 있는 거대한 석담이 아니라, 눈으로만 보아야 하는, 마음으로만 읽어야 하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오솔길의 적석담 같다.

돌담 너머에 작은 동백나무 하나가 꽃잎을 띄우고 있었다. 산새 한 마리가 요란하게 울어대며 돌담에 날아와 앉았다. 동백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선운사에 가면 동백을 보고 온다. 그렇다 선운사를 찾

는다면 동백을 보고 와야 한다. 하지만 피지 않은 동백은 어찌 해야 할까.

선운사 입구에는 미당의 시비가 있다. 시비에는 그의 시 '선운사 동구'가 새겨져있다.

선운사 골짜기로 /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 동백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 막걸리집 여자의 옥자백이 가락에 /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돌담 위에 내려와 앉았던 산새는 동백을 다 보았을까. 혹시 작년 것만 피어 있다고 목이 쉬게 울고 간 것은 아닐까.

글·사진 = 박재원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선운사 동구'가 새겨져 있는 미당의 시비가 이제는 볼 수 없는 시인의 모습을 대신하고 있다.

선운사 가는 길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사 IC를 나와서 선운사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 대중교통은 고창에서 출발하는 직행버스(8회)와 군내버스(24회), 흥덕에서 출발하는 직행(4회)버스와 군내버스(50분 간격), 정읍에서 출발하는 직행버스(4회), 광주에서 출발하는 직행(8회)를 이용하면 된다.

2010년 봄 햇차 선금주문 할인행사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국내선 4층 입점
- 제다실습(전남 무안군 초의선사)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문의:(061)285-0301,2

단 한번의 기회. 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햇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품질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세계가 인증(최고금상)한 "다성 초의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착순 선금 주문을 받으니, 착오 없이 기간 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만통(1통 100g) 주문 받습니다.

※ 햇차 선금 주문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우 전(첫물)	세 작 (두물)	중 작 (세물)
선금 주문 가격	35,000원	20,000원	10,000원
판매 가격	70,000원	50,000원	30,000원
선금 주문 기간	3월01일~4월10일	3월01일~4월20일	3월01일~4월30일
차 만드는 시기	4월10일~4월20일	4월21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차 발송 예정 기간	4월27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5월15일~5월30일

※ 우전은 4월10일, 세작은 4월20일, 중작은 4월30일까지만 선입금과 함께 주문을 받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 판매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입금 : 농협 635070-51-049724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팩스 : 061-285-0304 choyeetea.co.kr/choyee.or.kr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사 생가



▲초의선원



▲조선지역사박물관



▲청와대사랑채 무료시음



▲제다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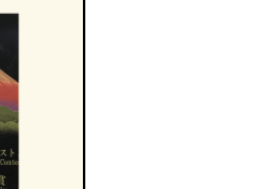
▲한국지문화특강



▲청와대사랑채 다도체험



▲특허증



▲최고금상 상패